

入住 3주년 기념행사 및 주민대잔치

소흘읍 주공4단지 고운마을 住民和合의 계기

포천시 소흘읍에 위치한 주공4단지 고운마을은 10월20일 입주 3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및 주민대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입주인 상당수가 단독세대 및 특거노인, 외국인 가정,

새터민등으로 구성되어 이웃과의 교류가 적고 상대적으로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이 약한 주민들에게 주민대잔치를 열어 그 동안 서먹서먹했던 이웃들과도 인사를 하고 회포도 풀며 같은 단지 주민으로서의

연대감을 갖게 하자는 의도에서 동대표와 관리사무소측이 합동으로 개최했다.

오전 11시 포천시 풍물패의 흥겨운 풍악으로 시작되었으며 주민들의 장기 및 노래자랑, 초대

가수 공연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과 푸짐한 상공제공 등으로 주민들은 모처럼 흥겨운 하루를 보냈다.

이번 행사를 위하여 포천시는 행사장비 일체를 지원해 주었고 상당액의 음식료 및 경품 등을 지역 사회에서 가까이 후원했다.

올해 입주한 한 새터민은 "그동안 직장도 집안도 완쾌하고 거의 이웃은 물론이고 같은 새터민끼리도 교류가 없어 고립감이 심했는데 이번 행사에서 이웃과도 인사를 하고 새터민끼리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정보도 교환하는 등 아주 유익했다고 이번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주공4단지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사회 또는 지역으로부터 정서적·물질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많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 출신, 인종, 빈부에 상관없이 한 단지 주민이라는 동료감을 심어준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소흘읍에 위치한 주공4단지 고운마을은 10월20일 입주 3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및 주민대잔치를 개최했다.



포천시아구협회는 10월28일 12시 영북중학교 운동장에서 제2회 포천시체육회장배 야구대회 개막식을 갖고 한달간의 게임에 들어갔다.

제2회 포천시체육회장배 야구대회 개막

첫 대회 8개팀 보다 7개팀 늘어난 15개팀 참가

포천시아구협회(회장 장승호)는 10월28일 12시 영북중학교 운동장에서 제2회 포천시체육회장배 야구대회 개막식을 갖고 한달간의 게임에 들어갔다.

이번 개막식은 이찬규 포천시 테니스협회장, 조복현 포천시태권도협회장, 이기양 포천시탁구협회장, 이규환 포천시댄스스포츠경기연맹회장 등과 참가팀 선수들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주 일요일 영북중학교에서 진행될 계획이며 참가한 각 팀과 선수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2007년 한 해 많은 대회와 경기를 통해 야구단과 선수여러분들의 높아진

기량과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여 수준높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장 회장은 야구장 한 곳 없는 야구의 불모지에 영북중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영북중학교와 의료봉사에 나서준 연세백병원 관계자와 포천시체육회 전무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하기도 했다.

이번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주 일요일 영북중학교에서 진행될 계획이며 참가한 각 팀과 선수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2007년 한 해 많은 대회와 경기를 통해 야구단과 선수여러분들의 높아진

독 이진삼) ▶YMCA야구단(감독 이경석) ▶영종리더스야구단(감독 임병수) ▶대진불스야구단(감독 이상화) ▶다이내믹 타이거즈야구단(감독 유기준) ▶동두천시 ▶이담야구단(감독 김도균) ▶청합야구단(감독 강경환) ▶남양주시 ▶플린스야구단(감독 박성호) ▶연천군 ▶메니아야구단(감독 박광석) ▶철원군 ▶철루미야구단(감독 이대환) ▶의정부시 ▶한전 경기북부캐피츠야구단(감독 신성관) ▶기타 ▶NBC야구단(감독 황유성) ▶매봉 이글스야구단(감독 김광민)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서로 돕고 봉사하는 사회 만들기

포천시 청소년새마을지도자 발대식

포천시새마을회(회장 강태선)는 10월18일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청소년새마을지도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박윤국 포천시장, 이강립 포천시의회 의장, 최길용 포천교육장과 포천시새마을회 소속단체장 및 포천시 32개 초등학교 청소년새마을지도자 320명과 교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발대식은 개회식과 양승진 감사의 봉사의 의미 및 청소년새마을지도자의 봉사활동 및 태도에 대해 50분간 특강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포천시 청소년새마을지도자는 기초질서지킴이, 서로 돕고 봉사하는 사회 및 평안하고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지난 10월18일 발대식을 갖고 출범한 포천시 청소년새마을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콩 수확봉사 이웃사랑 실천”

농촌봉사활동 나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수확의 계절답게 들녘마다 가을에 울려 퍼지는 농작물 수확이 한창이다. 이때이면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떠오른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가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돕고, 활발한 대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

한 사회를 만들고자 농촌일손 돕기에 나섰다.

17일 하나님의 교회 포천지역 성도 30여명은 콩 재배 농가인 관내 포천시 영북면 아미리 신택현 씨 댁을 찾아 하루 종일 콩 수확을 도왔다.

성도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선 하나님의 교회 정길학 전도사는

“콩 수확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농부 형제의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면서 “작은 도움이지만 농가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락을 준비해 이른 아침부터 땀을 흘리며 수확을 도왔던 성도들은 수확할 시기만을 바라보며 일년 내 정성들인 농부의 마음을 생각하며 서툰 솜씨지만 마음을 다해 콩 뽑기 작업에 매달렸다.

약 3만 평의 콩 농사를 짓고 있는 신택현씨는 “도저히 우리 힘만으로는 수확이 어려워 영북면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주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며 힘이 난다”며 콩밭을 찾은 자원봉사자들을 반갑게 맞았다.

영북면 관계자는 “지역 교회가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발벗고 나서서 모습을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관내 주민들과 지역을 위한 일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며 교회의 봉사활동을 칭찬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돕고, 활발한 대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농촌일손 돕기에 나섰다.

자유기고

역새축제와 기타연주



송미영 주부행복지단대표

산정호수의 가을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황금빛 역새 물결과 호수 한 가운데 힘차게 솟아오르는 물기둥을 뒤로 하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무대 위에서 가을 분위기를 어울리는 기타동아리의 7080가요

연주가 흘러나온다. “내 마음이 가는 그곳에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갈 수 없는 먼 곳이기에 그리움만 더하는 사연 코스모스 길을 따라서 끝이 없이 생각할 때에 보고 싶어 가고 싶어서 슬퍼지는 내 마음이여.....”

미련, 사랑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모닥불, 잊으리, 초연, 너, 돌아와요 부산항에, 길가에 앉아서, 진정 난 몰랐었네, 옥정이,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사랑Two, 만남.....

이 가을을 축축이 적셔주는 노래를 부르는 김미경 부단장, 이대경 신북지부장, 임선화 내촌지부장과 각을 기타동아리 회원들, 10월23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영북·영종지부 모임은 그렇게 낭만적으로 이어졌다.

박혜자 단장의 ‘초연’, 김진남 군내면 지부장의 ‘잊으리’ 열창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귀가에 맴돈다.

노래를 들던 관객이 무대 위로 올라와 ‘너’를 반주에 맞추어 열창할 때는 최고조로 분위기가 띄워져 관객과 기타 연주가 하나 되는 느낌이었다.

역새축제가 한창인 산정호수 조각공원에서 축제 분위기에 부응하여 김미경 부단장이 이끄는 각을 기타동아리의 추계수련대회 및 영북·영종지부 단합대회를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음악을 통한 봉사와 연륜을 통한 봉사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결의도 다시 영종지부 모임을 그렇게 낭만적으로 이어졌다.



이규연 민족행복지단대표

自律 ‘스스로 다스린다’ 他律 ‘남에 의해 다스려진다’

움직이는 것이다. 자신의 의지가 작용하는 것이다. 타인(他人)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타율은 그게 아니다. 타율(他律)은 남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남의 명령(命令)을 받는 것이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가 작용하는 것이다. 타인의 생각이 작용하는 것이다.

타율이 소극적(消極的)이라면 자율은 적극적(積極的)이다. 무슨 일을 하던 소극적으로 해선 안 된다.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한다. 이왕 하는 일을 소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적극적으로 해야 신바람도 나고 적극적으로 해야 힘도 솟는다. 신바람이 나면 힘든 줄도 모른다. 신명을 다해 일하다 보면 저절로 흥이 난다.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길로 가는 비결(秘訣)이다.

자율(自律)이란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타율(他律)이란 ‘남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것이다. 자율은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자신의 의지(意志)에 따라

하는 일이나 남을 의식(意識)할 필요도 없고 남을 원망(怨望)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스스로 움직일 일도 없다. 잘 돼도 내 탓이고 못 돼도 내 탓이니 누구 원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갈등(葛藤)도 없고 다툼도 없다. 그저 심은 대로 가꾸고 거둘 뿐이다.

자율규제(自律規制)와 타율규제(他律規制)란 말도 있다. 사회구성원(社會構成員)이 작든 크든 그 단체 밖에서 규제를 받으면 타율규제가 되는 것이고 그 내부에서 규제를 받으면 자율규제가 되는 것이다. 헌법(憲法)이나 법령(法令)으로 룰(rule)을 정한 것이 타율규제에 속하는 것이고 회사내규(會社內規)나 강령(綱領) 같은 것으로 룰을 정한 것이 자율규제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율규제로 다스리면 타율규제가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자율규제가 그 만큼 소중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서 선진 사회일수록 타율규제보다는 자율규제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자율규제’가 바람직한 이유도 있다. 집안 일은 집안사람들

이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이다. 집박의 사람이 그 집 안 사정을 집안사람보다 더 잘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집안사람들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效率的)이고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당사자(當事者)의 말을 듣고 전문가(專門家)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영역을 침범하면 일이 잘 될 리 없다는 말이다. 서울 안 기본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은 ‘스스로 우려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행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공감(共感)할 때 가장 감정이입(感情移入)이 잘 되는 것이고 ‘카타르시스(catharsis)’ 작용이 잘 일어나는 것이다. 정화작용(淨化作用)이 잘 일어나는 것이다. 자율(自律)이 소중한 이유이고 자율이 바람직한 이유이다.

웰빙

부사의(不思意)

자율(自律)과 타율(他律) 34

‘자율적(自律的)으로 하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또 ‘타율적(他律的)으로 움직인다’는 말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럴 때 말하는 율(律)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율(律)이란 ‘다스린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 규율부(規律部)라는 것이 있었다. 규율부에서 말하는 규(規)란 규칙(規則)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율(律)은 다스린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말하는 규율이란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스린다는 것이다.

자율(自律)이란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타율(他律)이란 ‘남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것이다. 자율은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자신의 의지(意志)에 따라

자유기고

아름다운 삶의 길을 향하여



이은미 주부행복지단대표

아갔고, 다른 사람은 뛰어나온 돌에 넘어져 일어나지를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은 길을 가다 그 길이 아니어서 다른 길로 되돌아간다. 사람들은 길을 가다 우

연히 자신의 짝을 만나 함께 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 길을 함께 할 수도 있다.

나 또한 그 여정을 43년 지나왔다.

걸어오면서 기뻐서 더 빨리 달려 온 적도 있고 슬퍼서 잠시 멈춘 적도 많았다. 동행을 만나 두 말 출산 후 막둥이 아들을 낳았을 때 모든 것을 다 얻은 듯 기쁨으로 기르며 각자 생각대로 서로의 길을 걸어왔다.

서로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의견충돌도 많았고 서로를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았다. 그러던

어느 순간 우린 서로를 이해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던 언제부터인가 서로에게 맞추어 갔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빨리 넘어, 17년을 함께 했다. 뛰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앞을 보고 일어서며 이 길을 운명으로 여겼다.

술한 시행착오를 통해, 이전 넘어지지 않고 가족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손잡아주며 다 함께 행복의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간다.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